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 개발

신소희* /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연구원

최정선 / 협동조합 행복농장 상임이사

정영환 /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매니저

연구 필요성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돌봄을 주고받는다. 아이와 노인, 몸이 아픈 사람과 마음이 아픈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봄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 동물과 식물, 사물과 생각까지 모두 돌봐야 한다(김은주 외, 2005)는 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돌봄의 노동과 비용, 그 책임과 부담은 개인과 가족이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돌봄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돌봄의 공공성, 돌봄의 사회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19년 공모를 통해 전국 16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

* 신소희: 농사지으러 내려간 충남 홍성군에서 어쩌다 연구를 업으로 하고 있다. ‘일만 하는 소, 공부만 하는 도깨비’가 되지 않기 위해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에서 농업·농촌·농민에 대해 배우고 있다.

법' 제정도 준비 중이다.

농촌은 도시보다 인구와 소득이 적다. 고령화율이 높고 사회복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역사회에서 이웃이 서로 돌볼 수 있는 자원과 협력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엮어내고 추진할 '사람'이 필요하다. 멀리 내다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돌봄농업은 농업의 다기능성을 기반으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농촌 지역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돌봄농업 실천으로 지역 내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81번째 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서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교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농림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현재 총 30개 농장 및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농촌 곳곳에서 농업과 마을 자원을 바탕으로 이웃을 돕는 농민들은 이미 존재해왔다. 그러나 개별농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개인의 선의와 희생에 의존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하고 농촌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산하기 어렵다. 돌봄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 정책사업이 확대되는 동시에 실천 사례의 발굴과 분석, 주체의 육성과 확산의 필요도 커졌다.

하지만 관심과 열의를 지닌 이들이 돌봄농업의 이론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기획·운영에 필요한 관점과 실천 기법을 적절하게 학습하고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일본 등 외국의 돌봄농업 사례 연구나 문헌 자료는 많지만, 우리나라 사례는 신문기사와 개인 블로그 등에서 단편적으로 소개할 뿐이다. 한국의 농업·농촌 현실에 맞는 돌봄농업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에서는 일반 농민들이 농촌 마을에서 돌봄농업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간의 경험과 성찰을 모아 실천 매뉴얼을 개발·제공하고자 한다. 농장에서 농업 생산 이외에 다양한 만남과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싶은 농민, 마을에서 이웃과 서로 돌보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자 하는 마을 주민,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돌봄농업을 소개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돌봄농업의 개념 및 실천 사례조사, 돌봄농업 실천 경험 분석,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 개발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문헌 연구, 현장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표 1〉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돌봄농업의 개념 및 실천 사례조사	1. 문헌 연구 가. ‘돌봄’의 개념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학습 나. 국내외 사회적농업(돌봄농업)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돌봄농업 실천 경험 분석	2. 현장 연구 가. 협동조합 행복농장 돌봄농업 실천 참여관찰 나. 돌봄농업 실천 농장 방문 면담 및 협의체 모임 참관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 개발	3. 전문가 자문회의 가. 돌봄농업 실천 내용 및 방식, 체계 구체화 나. 매뉴얼 구성 및 내용 검토

1. 문헌 연구

가. ‘돌봄’의 개념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학습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에서 직접 ‘돌봄’의 개념을 다루지는 않지만, 돌봄농업 참가자를 대상화하거나 지나치게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돌봄’ 개념을 학습했다. Eva Feder Kittay(1999), Nancy Folbre(2001), 공병혜(2017) 등을 통해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본 돌봄의 철학과 공공윤리로서의 돌봄 패러다임을 살펴봤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농촌지역 사회 서비스에 관련 정책연구를 일별했다. 돌봄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 국내외 사회적농업(돌봄농업)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연구보고서(김정섭 외(2017, 2019), 이윤정(2016), 황영모(2019) 등)와 세미나 자료를 통해 사회적농업의 개념과 대표 사례를 조사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다수의 치유농업 관련 자료를 발간하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치유농업을 일종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고 있어서 본 매뉴얼의 ‘돌봄농업’과는 지향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사회적농업 실천과 논의를 먼저 시작한 유럽에서도 많은 연구와 경험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네덜란드(Jan Hassink et al(2001), Marjolein Koffijberg et al(2012))와 아일랜드(Jim Kimsella et al(2014), CEDRA(2017))의 사회적농업 자료를 주로 참고했다. 그중에서도 성과평가와 가이드 자료의 목차와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돌봄농업 실천 국내 사례 자료는 많지 않았다. 신문기사나 블로그 글 등 단편적인 정보와 단순한 사례 소개가 대부분이었다.

2. 현장 연구

가. ‘돌봄’의 개념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학습

현장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협동조합 행복농장(이하 ‘행복농장’)의 2019년 돌봄농업 실천을 참여 관찰했다. 행복농장에서 2019년 진행한 돌봄농업 활동은 <표 2>와 같다.

행복농장 돌봄농업 활동 대부분은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2리에 있는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이하 ‘오누이마을’)과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이하 ‘젊은협업농장’)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책임연구자가 공동연구자(행복농장 상임이사/젊은협업농장 매니저)의 돌봄농업 실천에 참여해 사진을 촬영했다.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 회의를 참관하고 참가자 일지와 소감 등도 수집했다. 농민은 물론, 마을 주민, 복지기관 실무자, 교사, 프로그램 참가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돌봄농업 실천의 성과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매뉴얼 작성의 근거로 삼았다.

〈표 2〉 협동조합 행복농장 돌봄농업 활동(2019년)

활동명	일정	주요 대상 및 내용
자연구시 기초과정 1차	4. 1.~ 5. (4박 5일)	- 충남 도내 성인 정신장애인 12명 참여 -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 주관
자연구시 기초과정 2차	4.29.~5. 1. (2박 3일)	- 그룹홈 생활 성인 만성장애인 및 실무자 9명 참여 - 한울정신건강복지협의회 공동생활가정연합 공동 주관
돌보는농부학교	3월~11월 (총 14회)	- 홍성군 내 성인 정신장애인 19명 참여 -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 주관
꼬마농부학교	5월~11월 (총 9회)	- 장곡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2명 - 원예 체험 활동
마을돌봄모임	4월~12월 (총 36회)	- 커뮤니티 케어, 지역 거주 성인 장애인 5명
마을공동체 활동	연중	- 마을합동총회, 명절 행사, 축제, 모종장터, 주민 공동 마을 환경 및 경관 관리 활동 등

나. 돌봄농업 실천 농장 방문 면담 및 협의체 모임 참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8개 농장의 협의체 모임과 관련 세미나를 참관하고 기록했다. 협의체 모임은 분과별로 사업 참여 농장에서 열렸다. 덕분에 협의체 모임 참관과 사례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방문 농장의 돌봄 활동 방식과 내용을 자세하게 볼 기회였다. 협의체 모임은 장애/청년/기타 분과로 나뉘어서 진행됐는데 주로 장애분과 모임에 참여했다. 장애분과 모임에서는 격월로 7~9개 농장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회차마다 주제를 정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의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돌봄농업의 실천 과제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사회적농장 협의체 모임 및 세미나 참관 내용(2019년)

NO	모임일	장소	주요 내용
1	3.21.	충북 청주시	사회적농업 농가협의체 구성 논의
2	4.25.	세종시 식초마을 (진여울영농조합법인)	(전체) 2019년 사회적농업 신규농가 소개 및 사업계획 공유, 분과 구성, 식초마을 소개
3	5.27.	충북 보은군 성원농장	(장애분과) 성원농장 소개, 정책사업 활용 및 지역 민관거버넌스 논의
4	7.22.	전남 나주시 화탑영농조합법인	(장애분과) 화탑영농조합법인 소개, 지역협력 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 과제 논의
5	7.23.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기타분과) 여민동락공동체 소개, 돌봄농업의 범위와 농민 역할, 실천 인력 양성
6	9.23.	울산시 금곡영농조합법인	(장애분과) 농장 여건에 맞는 대상자 교육 및 프로그램, 일자리 제공 계획 및 고용방안 논의
7	10.16.	세종시 농림부	(전체) 사회적농업 활동 기록 공유 및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
8	10.28.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사회적농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회적농업 육성법 필요와 법제 발전 방향
9	11.28.	전북 무주군 팜앤씨티	(장애분과) 팜앤씨티 소개 및 체험, 중간지원조직 협력 사례, 지역 협력관계 구축
10	12.10.~ 11.	서울시	사회적농업 국제 심포지엄, 사회적농업과 복지제도 연계

3. 전문가 자문

연구 과정 중 총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개별적으로 자문을 하여 답을 받았다. 연구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기 이전에 연구 설계 회의를 진행했는데 연구진 외에 농촌사회 연구자, 사회복지 연구자, 보건복지 전문가, 지역 농민 등이 참여하여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의 관점과 접근 방식, 내용의 범위와 구성 요소를 논의했다. 자료 수집과 현장 연구를 마무리하고 매뉴얼을 절반 정도 작성하고 나서 두 번째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매뉴얼의 구성 방식과 순서를 조정하고 작성 내용

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두 차례 전문가 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뉴얼 초안을 완성하고 난 후에는 전문가에 자문하여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연구 결과

1. 행복농장 설립과 운영

2013년 행복농장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는 농촌인 충남 지역에서 만성정신질환자의 직업 자활 및 치유 모델로 농업을 생각하고, 농장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물색하다가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에서 젊은협업농장을 만났다. 지역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농창업과 자립을 고민하며 함께 농사짓고 있던 젊은협업농장의 경험과 사회자본은 행복농장 구상과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침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젊은협업농장에서 농업을 익히고 있던 청년이 결합하면서 행복농장 설립이 본격화됐다.

2014년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의 비닐하우스 두 동을 빌려 본격적인 농업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복지센터에서 농장을 직영하고 지역에서 보조하는 형태였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3년 동안 '농촌형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 복지센터에서는 행복농장 담당 청년을 정식 고용하고 하우스 임대료와 시설보수비, 필요 집기 구매 등을 센터 사업비로 집행했다. 이어서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농업 직업재활 프로그램인 '자연구시'를 기획하고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센터에서 직접 농업과 사업 진행을 병행하는 형태로는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상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했다. 지원사업 종료 이후 농장 운영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었다.

2015년 지역과 복지센터가 협의하여 농장의 독립 운영을 결정했다. 마침 도산리 다른 임대농지에 젊은협업농장 사업비와 삼선재단 지원으로 구축한 신축 하우스 4동을 이를 임대하는 형태로 농장을 확장 이전했다. 일상적으로 영농에 몰두하며 농장을 이끌어 나갈 지역 주민과 농민이 실무진으로 결합했다. 마을 이장, 지역 영농조

합 대표, 전 복지센터장이었던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지역 농민, 실무자 등으로 이사진을 꾸리고, 2016년 2월 정식으로 협동조합 등록을 했다.

농장이 독립한 이후에는 실무자들은 농업 소득을 바탕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생활한다. 루꼴라, 바질, 민트 등의 허브와 여러 종류 원예식물을 재배하고 바질페스토, 허브소금 등 가공품도 개발했다. 농산물은 대부분 홍성유기농영농조합에 납품하고 일부 직거래를 통해 판매한다. 돌봄 활동은 관련 사업 지원을 받거나 파트너 기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홍성군농업기술센터의 ‘치유형 농업 체험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으로 농장 작업장과 요리체험장을 조성하고 정신과 외래진료 청소년, 미혼모 청소년, 장애인 가족, 노숙인 등 쉽고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대상을 만났다. 행복농장에 적합한 돌봄활동의 비중과 범위, 방식을 찾는 과정이었다. 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5년 동안 사회적농업 기반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진행 예산을 지원받는다.

자연구시¹⁾는 2014년부터 매년 1~2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기초과정의 대상자 모집과 사례 관리는 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행복농장에서는 농장에서의 활동과 기초과정 이후 심화과정, 인턴십을 진행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자연구시 4박 5일 기초과정, 2주 심화과정, 6개월 인턴 과정을 거쳐 두 사람이 마을에서 함께 일하게 됐다. 한 사람은 행복농장에서 농사일을 하고, 한 사람은 오누이마을에서 시설 관리를 한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일하게 되면서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홍성읍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한다. 행복농장 스태프가 이들의 출퇴근이나 약 챙겨주기, 병원 동행 등을 돕고 있다. 마을 행사나 나들이가 있을 때 마을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2019년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마을에 사는 장애인, 비장애인 이웃과 함께 요리 활동을 해서 나눠 먹는 모임을 열었다. 마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과 주변 여건을 마련해서 마을에서 함께 사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1) 본 보고서에서는 행복농장의 돌봄 활동 중 자연구시(自然求是) 프로그램만 소개한다. 다른 활동은 대신농촌재단 홈페이지(dsa.or.kr) 농업실용연구총서 부록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행복농장 자연구시 진행 경과

연도	내용
2013년	-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농촌형 직업재활 모형 개발사업 기획 - 정신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2014년	- 기초과정: 사회복귀시설 라온의집(12회), 홍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10회) - 심화과정: 라온의집, 가온누리, 홍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 15명, 4박 5일 수료
2015년	- 일일과정: 1회, 17명 참여 - 기초과정: 4박 5일, 3회, 총 31명 수료 - 심화과정: 14박 15일, 4명 수료 > 인턴 2명 채용
2016년	- 일일과정: 3회, 39명 참여 - 기초과정: 4박 5일, 3회, 총 30명 수료 - 심화과정: 14박 15일, 4명 수료 > 인턴 1명, 정규 1명 채용
2017년	- 기초과정: 4박 5일, 2회, 총 28명 수료
2018년	- 기초과정: 2박 3일 1회, 7명 수료 4박 5일 1회, 11명 수료
2019년	- 기초과정: 2박 3일 1회, 12명 수료 4박 5일 1회, 15명 수료

또한 2019년부터 홍성군보건소와 협력하여, 한 달에 두 번씩 홍성군 정신장애인을 위한 농업체험 프로그램 ‘돌보는 농부학교’를 진행했다. 장곡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함께 하는 ‘꼬마농부학교’도 진행한다.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이웃과 함께 일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며, 지역과 협력하는 경험과 신뢰를 쌓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자연과 정신건강’, ‘사회적 농업’, ‘장애의 이해’ 등 매년 주제를 정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행복농장에서 지은 요리체험장을 마을 공유부엌 겸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누이센터, 예절교육관 등 마을 공동 공간을 행복농장 주도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꾼다. 자연구시 등 프로그램 일부는 지역 농가나 교육,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단체와 함께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접촉빈도를 높이고 있다.

2. 돌봄농업 실천 경험: 농촌형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자연구시²⁾

가. 배경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조사’(20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39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법적 정신장애등록자는 10만 1,148명이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 고용률은 12%이다. 전체 장애인 평균인 47%와 35%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신질환이 갖는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취업하기가 더 어렵다. 일은 단순히 생계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회로 들어가는 입장권’, 자아실현의 수단, 일상을 구조화하는 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재활과 지원이 필요하다.

2013년 복지센터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농촌형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고민했다. 이에 2014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년 지원사업(총액 5,000만 원)으로 행복농장을 설립하고 농촌형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자연구시(自然求是)’를 기획하게 되었다. 자연구시는 조선 실학사상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서 빌린 개념으로 ‘자연에서 옳음을 구한다’라는 뜻이다. 농촌 마을의 환경과 일상, 농업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목적을 나타낸다.

나. 단계

자연구시는 4단계의 과정이 있다. 일일과정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복지센터, 정신장애인 병원, 사회복귀시설 등 기관별로 다수가 참여한다. 본격적으로 기초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농사일을 경험해보고 흥미를 유도하는 맛보기 체험 과정이다. 기초과정은 2박 3일 또는 4박 5일로 진행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와 진행자가 함께 마을에서 숙식하며 농작업 이외에도 정신건강 집단프로그램, 마음 나누기, 호흡·이완 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 야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2) 배경 소개 일부는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2016)를 참조했다.

〈표 5〉 1차 자연구시 일정표(4.1.~5., 4박 5일)

일정	시간	내용	장소
1일 차 (4/1)	11:00~11:30	픽업 및 이동	
	11:30~12:30	오리엔테이션	오누이 강당
	12:30~13:30	점심식사	행복부엌
	13:30~15:00	마을산책, 농장과 농작업 소개	행복농장, 젊은협업농장
	15:00~16:00	숙소이동 및 휴식	한옥집
	16:00~16:30	집단프로그램: 마음챙김요가 1	강당
	16:30~18:00	집단상담프로그램	오누이 강당
	18:00~19:00	저녁식사	행복부엌
	19:00~21:00	휴식 및 자유시간(영화관람)	한옥집/강당
	21:00	휴식 및 취침	한옥집
2일 차 (4/2)	07:00~08:00	기상 및 세면	한옥집
	08:00~09:00	아침식사, 집단프로그램: 체조	행복부엌,마당
	09:00~12:00	농작업 1: 밭정리, 수확	젊은협업농장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행복부엌,한옥집
	13:00~14:00	마음챙김요가 2	오누이 강당
	14:00~16:30	농작업 2: 옮겨심기, 수확	행복농장
	16:30~17:00	숙소 이동 및 휴식	한옥집
	17:00~18:00	호흡이완프로그램	한옥집
	18:00~19:00	저녁식사	행복부엌
	19:00~20:00	집단상담프로그램	한옥집
	20:00	휴식 및 취침	한옥집
3일 차 (4/3)	07:00~08:00	기상 및 세면	한옥집
	08:00~09:00	아침식사 및 체조	행복부엌,마당
	09:00~12:00	농작업 3: 삽목 및 정식	행복농장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행복부엌,한옥집
	13:00~14:00	마음챙김요가 3	오누이 강당
	14:00~16:30	농작업 4: 화단, 산양 돌보기	마을
	16:30~17:00	숙소이동 및 휴식	한옥집
	17:00~18:00	집단상담프로그램	오누이 강당
	18:00~19:00	저녁식사	행복부엌
	19:00	휴식 및 취침	한옥집

4일 차 (4/4)	07:00~08:00	기상 및 세면	
	08:00~09:00	아침식사 및 체조	한옥집,마당
	09:00~10:30	제초작업	행복농장
	10:30~11:00	숙소이동 및 환복	한옥집
	11:00~12:00	이동	보령
	12:00~13:30	점심식사 후 이동	식당
	13:30~15:30	두부만들기, 바닷가 나들이	태안 돌담샘
	15:30~16:30	숙소로 이동 및 휴식	한옥집
	16:30~18:00	음악회	오누이 강당
	18:00~19:00	저녁식사(삼겹살파티)	행복부엌
	19:00~21:00	집단프로그램: 노래자랑	마을회관
	21:00	휴식 및 취침	한옥집
5일 차 (4/5)	07:00~08:00	기상 및 세면	
	08:00~09:00	아침식사 및 짐정리	한옥집
	09:00~09:30	저수지 산책	
	09:30~10:00	마음챙김요가 4	오누이 강당
	10:00~11:00	원예활동(잔디인형 만들기)	오누이 강당
	11:00~12:00	평가회(참가자)	오누이 강당
	12:00~13:00	점심식사	행복부엌
	13:00~14:00	평가회(STAFF)	오누이세미나실

2) 2차 자연구시

- 일정: 2019. 4.29.(월)~5. 1.(수), 2박 3일
- 장소: 행복농장 및 장곡면 도산2리 오누이센터 인근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행복농장,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울공동생활가정연합
- 참가자: 한울공동생활가정연합 그룹홈 활동가 및 정신장애인 15명

라. 세부내용

1) 오리엔테이션

관계 형성은 돌봄농업 실천의 첫 단추이다. 활동 첫날 참가자들은 낯선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긴장하게 된다. 다과와 공간 배치를 통해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대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긴장을 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여 농장과 기관, 진행자와 참가자를 가급적 친절하고 쉽게 소개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또 활동 세부일정 및 생활수칙을 안내하면서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정해진 일과를 제시하여 안정감을 심어준다. 특히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과 안전 유의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자연구시 생활수칙

자연구시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기상, 취침, 프로그램, 휴식 시간 등 프로그램 시간을 준수한다.
2. 시작 전에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흡연, 화장실 등)
3.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진행자와 다른 구성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4. 다른 구성원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갖는다.
5. 개인별 상황에 따라 약을 먹는다.
6. 흡연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구역에서 행한다.
7.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음주하지 않는다.
8. 위의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주관기관의 조치에 따른다.



[그림 2] 오리엔테이션

2) 마을과 농장 및 농작업 소개

자연구시는 행복농장뿐 아니라 마을 숙소와 식당, 강당은 물론이고 다른 농장, 저수지, 마을 길 등 둘레의 환경을 모두 이용한다. 첫날 참가자들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 농장에서는 농민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농장 및 농작업을 소개한다. 마을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숙함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3) 농작업

농작업에서는 참가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시작 전에는 간단한 몸풀기 체조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한다. 농기구나 장비를 사용하는 법과 활동이나 계절, 주변 환경에 따라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농작업 과정에서도 스태프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그림 3] 몸풀기 및 농작업 소개

농장의 규모와 농작업의 성격 등에 따라 참가자의 숫자를 조절하며, 참가자가 다수인 경우 필요에 따라 그룹으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장소(농장)에서 농작업을 진행한다. 일일과정과 기초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작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배치하며, 농장 또는 농작업은 참가자가 직접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의 개별적 능력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 농업인이 직접 농작업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에게는 집중·밀착 교육함으로써 지원한다.



[그림 4] 여러 가지 농작업

4) 집단상담·소통 프로그램

자연구시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을 한다. 여럿이 함께 소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참가자들의 성장과 회복을 추구한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감정 표현이 제한적이고 자신감과 사회기능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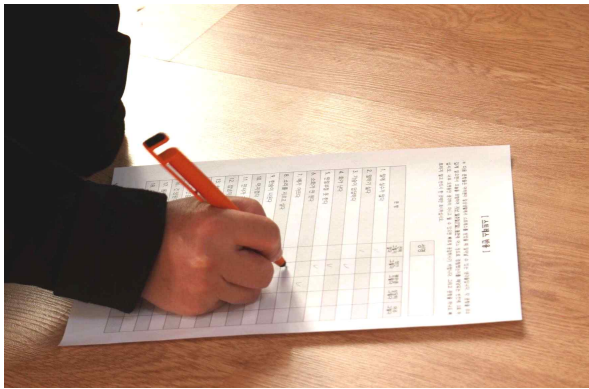


[그림 5] 집단상담·소통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모든 참가자에게 의무적으로 의견 표현을 강요하거나 독촉해서는 안 된다. 일과와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면서 정서적으로 환기하는 효과도 있다. 또 진행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및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공유한다.

5) 호흡·이완 프로그램

깊고 느리게 호흡하고, 이완된 자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을 완화하여 참가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6] 호흡·이완 프로그램

6) 문화체육 활동

농작업 외 시간에 놀이, 운동, 음악 등의 적극적 활동을 함께 한다.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자기표현을 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마음챙김 요가



음악회



원예 활동

[그림 7] 문화 체육 활동



다과회

7) 나들이

일상생활을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농작업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긴장이 쌓일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중 농장과 마을을 벗어나 야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번 자연구시에서는 가까운 태안군 돌담샘에서 두부 만들기, 허브 족욕 체험을 하고 바닷가 나들이를 했다.



[그림 8] 야외 프로그램(나들이)



8) 수료식

자연구시 참여 소감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했다. 모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정을 소화한 것을 축하하며 수료증을 수여했다.



[그림 9] 수료식

마. 역할 분담 및 지역 협력

- 행복농장(2명): 전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농작업 교육
- 복지센터(4명), 한울공동생활가정연합(3명): 홍보, 참가자 모집, 선발, 이동 책임, 집단상담 및 호흡·이완 프로그램 진행, 참가자 개별 상담
- 젊은협업농장(2명): 농작업 안내, 아침 체조
- 마을 주민: 나들이 교통 지원, 야간 숙소 안전 지원, 사진 기록, 보고서 작성, 식사 및 숙소 관리, 요가 수업

행복농장은 생산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자연구시를 진행하는 동안 행복농장 주 담당자 외에 돌봄농업에 관심 있는 지역의 다른 농민이 보조진행자로 함께한다. 행복농장 네트워크 농가로 협력하고 이후에 독자적으로 본인 농장에서 돌봄농업을 실천할 계획을 하고 있다.

4박 5일 중 일부는 이웃한 젊은협업농장이나 옥계열매농장, 라라농장 등에서 농업 활동을 한다. 다른 작목도 경험해보고 자연히 다른 농부들도 만나게 된다. 자연구시 기간에 모내기나 사과꽃을 따는 시기, 밤을 줍는 시기 등과 맞아 이웃 농가로 나가는 일도 있다. 풀을 베서 유산양 농장에 놀러 가기도 하고 가끔은 주민들과 함께 마을 저수지 청소나 화단 정리를 하는 등 마을 울력에 참여하기도 한다.

오누이마을에서는 숙박과 식사를 담당한다. 마을 한옥을 리모델링한 예절교육관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한옥 가족, 오누이마을 사무국 식구들을 만나게 된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매일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한옥집에서 머무는 동안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당직을 선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는 날에는 또 다른 마을 주민이 운전해주며, 마을 요가 선생님은 매일 농작업 후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몸을 풀 수 있게 요가를 가르쳐 준다. 마을에서 사진 찍는 청년은 농장 활동 기록으로도 남기고 참가자들이 나중에 추억할 수 있도록 멋진 사진을 찍어준다.

4박 5일 과정을 틈틈이 관찰하고 기록해서 보고서 작성과 평가를 돕는 마을 주민도 있다. 지난 자연구시에는 클래식 기타를 전공한 마을 청년이 자연구시 참가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자연구시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지역 주민, 농가,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바. 종합평가

1) 행복농장 역량 성장과 파트너십 발전, 지역사회 협력 확대

2014년부터 매해 1~2차례씩 자연구시 기초과정을 진행했다. 초반에는 복지센터의 역할이 컸지만, 현재는 행복농장에서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주관한다. 참가자 일부는 2~3년 연속 참가하거나 다른 활동(돌보는 농부학교, 인턴십 등)과 연계되는 사례도 있다.

행복농장과 복지센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울공동생활가정연합과의 파트너십도 발전했다. 복지센터, 한울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7년째, 한울공동생활가정연합과는 2년째 함께 자연구시를 진행하는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신뢰가 쌓이고 역할 분담도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 내 협력 관계도 확대된다. 행복농장 스태프 외 보조진행자, 야간 숙소 지원, 나들이 교통 지원, 체조 및 공동체 활동, 음악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인적 자원이 결합하여 진행한다. 2019년은 태안군 돌담샘 농장과 처음 나들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했다. 돌담샘농장의 배려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앞으로도 돌봄농업 실천의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병원에서 생활한 지 좀 오래됐어요. 이번에 참가자 모집을 많이 해서 기대하며 신청했는데 선정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어색하고 조금 거부감이 많이 들었지만, 병원에서 간혀 있는 것보다 좋은 점이 많았어요. 나와서 생활하니까 해방감도 있고 자유로운 점이 가장 좋아요.” - 참가자A

“오랫동안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것이 개개인의 삶에 유익한가?”라는 의문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기회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디딤돌이 자연구시라고 생각해요. 완성형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지역사회에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마을에 있는 것인데,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 스태프B

2) 참가자의 다양한 특성 반영

자연구시 참가자가 다양해졌다. 1차 자연구시의 경우에는 도내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련 기관(기초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원, 정신병원 등)에 공문을 보내 참가자를 모집한다. 복지센터에서 사전 인터뷰와 준비도를 평가하여 최종 참가자를 확정한다. 그러다 보니 병원, 요양원 등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참가자도 있고, 집에서 관련 기관의 주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참가자도 있다.

2차 자연구시 한울공동생활가정연합 참가자의 경우 모두 그룹홈 생활을 한다. 또 대부분 농촌 생활이나 농업을 접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참가자마다 특성이 다양하다. 수용생활을 하는 참가자에게는 자기주도적인 시간 관리가 어렵고, 개인 생활을 하는 참가자는 공동생활 일정이나 규칙에 매이는 것을 답답하다고 느꼈다.

자연구시에 대한 기대 역시 다양하다. 그저 쉼이나 체험을 바라고 오는 참가자도 있고, 다른 참가자와의 만남과 교류를 원하는 참가자, 농작업을 익히고 취업을 바라는 참가자도 있었다. 자연구시에 처음 참여하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일일자연구시나 자연구시 기초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농작업에 대한 열의와 기능의 차이가 발생한다. 참가자마다 적절한 작업 배치와 작업 시간, 강도의 안배가 필요했다. 또한, 자연스럽게 서로 입장과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공동생활과 농작업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협동

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유의미했다.

3) 당사자의 동료지원활동 촉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1차 자연구시 참가자 중 한 사람은 2차 자연구시 보조스태프로 다시 참여했다. 공동생활이나 농작업을 어려워하는 참가자를 챙기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열심히 참여했다. 참여 당사자가 스태프 역할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2014~5년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농장과 오누이마을에 고용된 두 사람 역시 2019년 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당사자 동료지원활동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돌봄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기로 했다.

4) 개선사항 및 향후 과제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기에는 마을 숙소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화장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외부에 있고, 여러 명이 단체로 한 방을 이용하는 구조라 개인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자유시간에 참가자 간 교류와 프로그램을 원하는 참가자와 개별적인 휴식을 원하는 참가자를 모두 배려할 수 있도록 일정과 공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자연구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상당 부분을 농림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분담과 합의가 필요하며 자연구시 심화과정이나 인턴십, 동료지원활동가 양성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참가자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3.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 개발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은 돌봄농업에 관심을 가진 농민을 위해 작성했다. 농장에서 농업 생산 이외에 다양한 만남과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싶은 농민, 마을에서 이웃들과 서로 돌보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자 하는 농촌 주민,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돌봄농업을 소개한다. 마을

활동가, 지역 조직, 보건복지 관련 기관 실무자, 공무원, 연구자, 예비 귀농·귀촌인 등 다기능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궁리하는 사람 모두가 독자층이다.

돌봄농업을 실천하려는 농민들이 견지해야 할 관점부터 실제적인 안내, 각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모았다. 어느 정도 안정된 농업 생산기반을 갖춘 후부터 돌봄농업 실천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지역의 배경과 상황, 농가의 규모와 영농방식, 돌봄농업 실천 동기와 추구하는 방향, 활동 내용이 다양하므로 돌봄농업 실천의 일률적인 모델과 방법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제시하기보다는 한국의 농업 농촌 현실에서 돌봄농업을 구상하고 실천할 때 최소한의 원칙과 지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농촌 지역사회에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고 무엇을 협업할 수 있는지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의 서론 격인 돌봄농업 실천 방향과 원칙, 범위까지만 제시한다.

가. 돌봄농업 실천 방향

내가 생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돌봄농업이 맞을까, 우리 농장에서 그동안 했던 활동들은 돌봄농업이 아닐까 궁금해하는 농민이 많다. 돌봄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라는 말은 유럽에서 먼저 사용했다. EU에서는 일찍이 사회적 농업 실천을 사회통합과 사회 혁신의 수단으로 주목하고 그에 따른 지원체계와 법률을 정비해 나갔다. 하지만 사회적 농업 실천과 논의를 먼저 시작한 유럽에서도 국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배경과 경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외국의 개념과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 현실에 무작정 대입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농업을 바탕으로 이웃과 마을을 돌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역마다 농가마다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서로 돌봄을 실천해온 농민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돌봄농업이다’, ‘아니다’를 단순한 기준으로 가를 수는 없다. 돌봄농업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농업 농촌 현실에서 더 풍부하고 다양한 실천들이 싹트고 확산할 수 있도록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돌봄농업 실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돌봄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돌봄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돌봄과 농사의 연결, 농촌사회에서의 돌봄을 함께 궁리한다.

“대지는 자신을 내세우며 군림하지 않는다. 대지는 스스로 숨으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품 안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그것이 자유롭게 존재하도록 지탱해 주는 신뢰와 자비의 한없는 기반이다. ... 대지 위에 삶의 자리를 짓는다는 것은 농부가 밭을 돌본다는 의미와 더불어 집을 짓거나 작품을 건립하는 제작을 통해 구체적인 자리를 지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인간이 자신의 터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친숙한 세계 속에서 참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본질 안에 머문다는 것이다.”(공병혜, 2017).

1) 진정한 돌봄

농부는 본래 돌보는 사람이다. 땅과 작물, 가축, 주변 환경, 가족, 이웃, 마을을 돌본다. 기름진 흙은 다시 건강한 작물과 사람을 키우고, 농가 살림을 풍요롭게 한다. 작은 배려와 선의는 친밀한 이웃과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돌봄의 관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돌봄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의 도처에서 좋은 삶을 기획하고 증진하기 위한 삶의 기본 방식이자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술’(공병혜, 2017)이다. 돌보아주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 모두 돌봄의 주체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그대로 서로 다른 입장과 표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돌봄의 관계가 시작된다. 재활·교육·훈련과는 차이가 있다. 다름을 마음 놓고 펼쳐낼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돌보는 이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지배하고 어떻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다. 상호 인정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돕는 일, ‘자기 체험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주위 세계를 신뢰하면서 미래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곁’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이에게 다시 곁이 있을 때, 그 ‘곁에 곁을 구축’(엄기호, 2019)하는 일이 돌봄의 사회화이다.

2) 농사와 돌봄

어쩌면 농사는 가장 온전한 돌봄을 배울 수 있는 활동이다. 순환하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생명과 협업하여 좋은 흙을 만들고 건강한 작물을 키워 다시 생

명을 살리는 일이다. 매일의 노동과 기다림으로 정성을 쏟다 보면 어느새 자연의 품 안에서 든든한 돌봄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밖에서 늘 보살핌만 받던 이도 농장에서는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주체가 된다. 농사일은 농부와 활동 스태프, 참가자의 역할이 같다. 씨앗을 심는 일, 흙을 고르는 일, 물을 주는 일,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일, 결가지를 따주는 일, 열매를 수확하는 일, 동물의 먹이를 챙기는 일,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일, 계절의 변화와 꽃의 아름다움, 작물의 성장에 감탄하는 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일 모두 돌보는 활동이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어울리고 농사일을 하다 보면 자기 문제에 신경 쓸 겨를 없이 사람들과 농작업에 집중하게 된다. 또 스스로 돌보고 서로 돕는 법을 배우게 된다. 돌봄의 책임을 느끼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많은 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돌봄을 받기만 하다가 돌보는 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갖게 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3) 농촌 마을과 돌봄

“나는 어떤 교구 안에 있는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라고 농부는 늘 그렇게 자기 소개를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존재에 그 마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마을은 그가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모든 인류와 그의 관계를 알게 되는 확고한 지점이었다.”(오스카 핸드린, 1951; 에드워드 렐프, 2005 재인용).

마을 어귀 늪름한 정자나무 아래엔 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온종일 풀과 씨름하다 한숨 돌리는 농부도, 나무 그늘 찾아 슬슬 마실 나온 어르신도, 할머니 따라 나온 어린아이도 시원한 물 한 잔, 수박 한 조각에 안부를 나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마을에 사는 사람도 많았다. 마을의 친족과 친구들은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때마다 농사일이며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일,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해나갔다. 마을에서 참된 관계를 맺고 정을 나누고 돌봄을 대물림했다. 마을은 일과 삶, 이웃과 동료, 가정과 마을, 정주공간과 자연환경이 분리되지 않는 상호의존적이며 구체적인 생활세계였다. 사람들은 그 친숙한 세계에서 사회적 소속감과 연

대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며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나고 농촌 마을 인구는 점점 줄어들었다. 마을 스스로 해결했던 많은 일이 국가와 시장으로 전유됐다. 공동체 문화와 일상의 기예들은 더 전수되지 않는다. 차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면에 있는 학교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20~30대 청년 농민은 네다섯 개 마을에 한 명 있을까 말까다. 50~60대가 마을의 막내인 경우가 허다하다. 본인은 마을의 어르신과 이웃을 돌보고 마을일을 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마을에 누가 남아 나를 보살펴 줄까 헛헛함을 느낀다. 허리가 아픈 꼬부랑 할머니는 매주 약 받으러 버스를 한참 타고 읍내로 나가야 한다.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평생 살던 마을을 떠나 자녀들이 사는 도시 근처 요양원으로 간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농촌 노인 자살률이 도시보다 약 1.5배나 높다.

농촌 마을에서 돌봄의 문화와 기능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그래도 여전히 농촌이 가진 가능성이 있다. 농촌 마을은 아직 대면 사회이다. 옆집 사정을 서로 훤히 알고 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멀리 사는 가족보다 동네 이장님을 먼저 찾는 게 농촌의 인지상정이다. 봄이 되면 기계를 가진 건장한 농부가 할머니의 작은 밭땀기를 갈아주고 부녀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에 반찬 나눔을 한다. 해마다 여러 집이 못자리를 함께 내며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고 한여름에는 울력으로 다 같이 마을 길 풀을 깎는다. 농한기에는 회관에 모여 함께 음식을 해 먹고 놀이도 한다. 고령화·과소화라는 어려운 여건과 함께 농촌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와는 다른 방식의 관계와 돌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농촌의 근간이 되는 농업이 주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농업은 그 자체로 농촌 삶의 양식이다. 농촌 문제와 농업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돌봄농업, 나아가 사회적 농업 실천과 확산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른바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라는 말을 흔히 해왔고, 그에 대해 별 의문조차 품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왜 정신장애인만이 사회 복귀를 해야 할까... 장애인은 정말 그런 것을 위해 태어난 것일까 하고 말이죠. 또는 우리의 역할도 말이에요. 그저 장애인의 장애성에만 시선을 두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차원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역할일까 하고 말이지요. 거기에 정말 의문이 있었거든요.

장애인의 사회 복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회 복귀야말로 주제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사회 복귀란, 즉 복귀해야 할 사회란 어떤 것일까 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우라카와라는 마을에 대해 말하자면, 사는 사람이 적고 일자리도 없으며 모두 나날의 생활에 고생을 겪고 있다. 대부분 젊은이는 마을을 뒤로하고 떠나지 않는다. 과연 이런 마을에 복귀하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이 마을 자체가 ‘사회 복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사이토 미치오, 2006).

나. 돌봄농업의 원칙

돌봄농업 실천에 앞서 과연 내가 돌봄농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마음속으로 따져 깊이 생각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대부분 농민은 농장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낀다. 하지만 돌봄농업의 형태와 방법을 정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고민해볼 거리를 제안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돌봄농업 실천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봅시다.” - 멕시코 치아파스의 어느 원주민 여성(김도현, 2019 재인용)

1) 돈벌이가 아니라 관계

간혹 농사만 지어서는 큰돈을 벌 수 없으니 혹시 돌봄농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돌봄농업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깨야 한다. 돌봄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웃으로서 농장에서 함께 만나고 일하고 어울리면서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실천과 농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돌봄농업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오히려 농업 생산에 집중하지 못하니 소득이 줄어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농민의 조건 없는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함께 부담하고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농촌사회의 공동체성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지속, 확장하려는 지원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없다. 돌봄농업 실천을 먼저 시작한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등 몇몇 국가에서는 관련 법제와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돌봄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경험이 한참 쌓이고 난 후, 농민들이 먼저 힘을 모아 각계각층과 공동으로 학습하고 연대한 결과이다. 돌봄농업 실천 농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2) 복지 서비스업이 아니라 농업

돌봄농업은 복지사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니라 농업이다. 이전에도 체험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원내나 텃밭을 활용한 때도 있었지만, 자연과 노작을 체험하는 한시적 장소와 프로그램이었을 뿐이다. 병원이나 요양 시설 소유의 논밭을 이용자와 스태프가 함께 경작하고 거기에서 농업생산 소득도 창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형태를 돌봄농업이라 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돌봄농업은 농업과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물론 그 나름의 효과나 의미는 충분히 있겠지만, 아마도 농업의 일상적인 노동, 농촌 마을의 생활과 관계 속으로 스며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통합과 사회혁신을 이루는 방법과 경로는 여러 가지다. 하지만 여타 산업과는 다른 농업과 농촌 마을의 고유한 가치를 결합했을 때 차별성이 드러난다. 자립적인 농업 생산기반은 큰 강점이 된다. 외부의 요구와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변수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농업은 독립적인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힘, 화폐 경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통합과 혁신을 상상할 힘이 된다. 사회적 농업에서 '농업'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농민 스스로 본래 농업 생산과 돌봄농업 실천 활동의 균형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행복농장에서는 돌봄 활동 수입³⁾이 농업 생산 수입을 앞

3) 대부분 농림부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이다. 하지만 보조금 중에서도 강사비 등 실제 농장 소득으로 돌아오는 비용은 아주 일부이다.

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최소 5:5의 균형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농업 관련 매출이 30% 이상 되는 사회적 협동조합만 사회적 농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했다. 사회적 농업의 실천 주체가 복지기관, 시설이 아니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민’임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3)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는 일

돌봄농업을 하려면 상담 공부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원예치료사, 체험지도사, 웃음치료사, 꽃차 소믈리에 과정이라도 들어야 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면 기존에 농사짓던 작목과 형태를 싹 다 바꿔서 사람들이 쉽고 좋아할 만한 다양한 작물을 심어야 하나 고민한다. 농장에서 사람들과 여러 활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좋지만, 그렇다고 농민이 직접 사회복지사나 각종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농장 규모나 형태, 작목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돌봄농업을 실천하려는 농민이 어떤 사람인가, 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돌봄농업 실천은 마을과 지역에서 함께 하는 일이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농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마을에 있는 여러 농장에서 많은 농민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할 기회를 만드는 편이 더 좋다. 또 농민이 스스로 사회복지사, 전문가가 될 필요 없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돌봄농업에 관여하고 참여하면 된다. 개별 농장 안에서 완결성을 갖추려면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농민은 많지 않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돌봄농업은 참가자들에게 그저 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아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는 이 없이 서로 돌보며 다양한 삶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게 더욱 중요하다.

돌봄농업을 하다 보면 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지역의 숨은 자원을 찾아내고 그 구슬을 꿰어야 한다. 농장에 찾아오는 참가자뿐 아니라 지역 내 여러 분야의 사람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해야 한다.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여러 분야의 사람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 가끔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독려하거나 엇갈린 의견으로 충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돌봄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사고파는 대상이 되면, 자발적으로 남에게 시간을 내주는 사람, 낯선 이를 돕는 사람, 공공선을 위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아무도 안 볼 때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덩달아 득을 볼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마치 속고 사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 로버트 커트너, 모든 것이 판매의 대상이 될 때(낸시 폴브레, 2007 재인용)

다. 돌봄농업의 범위

거리의 철학자 고병권은 “나는 ‘철학’을 묻는 말을 접할 때마다 그것은 ‘철학한다는 것’에 대한 물음으로 바꾸곤 한다. 내게 철학은 ‘앞의 대상’이라기 보다 ‘행함의 지혜’이고 결국 ‘행하므로 드러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철학은 앞이지 만 또한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김도현, 2019).

돌봄을 무엇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기를 돌보는 것과 노인을 돌보는 것,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것과 발을 돌보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과 지역경제를 돌보는 것은 다르다.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에 따라 돌봄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 이것은 돌봄농업이고 저것은 돌봄농업이 아니라고 딱 잘라 구분하기는 어렵다. 우선은 돌봄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각 지역과 농장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을 발굴하고 연결하면서 돌봄농업의 지형을 넓혀가야 한다. 차차 관련 지원정책이나 법규를 만들어나갈 때,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농업 실천 농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이해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유럽과학기술협동조합(COST)에서는 ‘녹색돌봄(Green care)’의 개념 모델과 치료 체계에 관한 협동 연구를 진행했다. 자연 기반의 혜택을 다양한 취약 집단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녹색돌봄이라고 한다. 의료부터 재활, 교육, 고용까지 모두 돌봄의 요소로 보고 있다. 돌봄의 방법과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 집단과 개인에게 ‘의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7〉 ‘녹색 돌봄’에서 돌봄을 의미하는 요소

돌봄 요소	제공	파트너십
의료	치료, 치료법, 특정 개입	1차 진료기관, 정신 건강 의료진, 사회서비스, 약물과 알코올 치료 단체, 그 외 건강 관련 단체
사회적 재활	사회적 재활, 공동체 복귀, 사회 기술	약물과 알코올 재활 기구, 보호 감찰부, 범법자 관리부 및 청소년 범죄 예방팀, 난민 기구, 그 외 단체
교육	대안교육, 특수 시설, 문제 행동 청소년에게 기회 부여	위탁 교육 단체, 학교 및 학습 기술 위원회, 그 외 교육 단체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농장 및 토지 관리 기술, 직업 훈련, 보호작업장	성인 학습 및 훈련 단체, 약물과 알코올 재활 기구, 보호 감찰부, 범법자 관리부 및 청소년 범죄 예방팀, 그 외 보호 고용 제도

자료: 유럽과학기술협동조합(2010)

돌봄농업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아무런 의도나 지향 없이 농장에서 사람들과 하는 모든 활동을 돌봄농업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다. ‘돌봄’의 내용과 수준은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가 결국 돌봄농업의 정체성이 된다. 기존 농촌 체험교육농장이나 원예치료, 직업 재활, 일자리 사업과 비교하고 그 차이를 통해 돌봄농업의 영역을 그려볼 수도 있다.

1) 농촌 체험 교육 vs 돌봄농업

농촌 체험 교육 농장에서 기존에 도시민이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체험 활동을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바로 돌봄농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농민이 농촌에서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다기능농업 실천이라는 점은 같다. 하지만 농촌 체험 교육이 농업과 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면 돌봄농업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웃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농민이 농장과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돕는 일이다.

그리고 농촌 체험 교육은 대부분 일회적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단절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이다. 딸기 따기, 고구마 캐기, 떡메치기, 요리하기 등 대부분 쉽고 흥미로운 수확 활동이 대부분이다. 체험 활동마다 값이 매겨져 있다. 결국 농민은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체험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된다. 돌봄농업에서는 농장에서의 활동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저 농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돌봄이 될 수도 있다. 농장에서 농사일도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조차 돌봄이 될 수 있다. 농민과 참가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웃이다. 물론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함께 자연을 돌보는 동료가 될 수도 있다.

2) 직업재활 훈련 vs 돌봄농업

돌봄농업은 직업 교육이나 재활과도 다르다. 참가자의 의사와 특성, 그리고 농장의 상황에 따라 고용을 염두에 두고 교육하거나 취업이나 창업을 도울 수 있지만, 개인의 노동 숙련이나 생산성 향상, 취·창업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또 보호작업장이나 일자리 사업과도 다르다. 장애인, 노인 등 특정한 집단만 모여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는다.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임금 지원을 받기 위해 돌봄농업을 생각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해서도 안 된다.

돌봄농업은 생산주의 농업과 임금 노동관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연결의 장(場)인 농업, 공통자원⁴⁾으로서의 노동⁵⁾을 생각한다. 마을과 농장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세대나 직업, 개인의 조건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타인을 만나고 어우러지는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4) 공통자원(common)이란 ‘우리 모두에게 상속’되었거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집합적인 자원,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로 전환될 수 없는 자원을 말한다. 전자의 예로는 공기, 물, 토지, 숲, 바다 등과 같은 자연의 창조물을, 후자의 예로는 언어, 문화, 음악, 예술, 학문, 지식, 인터넷, 공원, 광장,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창조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통자원은 해당 공동체 전체의 자원이기에 구성원 모두에게 ‘상품’이 아닌 ‘선물’로 주어져야 한다(김도현, 2019).

5) 노동능력이 공통자원인 이유는 톰 워커에 따르면 ‘노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발생부터 사회적이고 협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힐러리 웨인라이트는 ‘인간의 창조성은 개인과 사회 차원이 불가분하게 연결된 독특한 공통자원’이고 그러한 창조성이 개입하는 모든 인간의 실천 역시 공통자원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요컨대 노동능력은 다른 공통자원을 잉태하는 ‘공통자원의 공통자원’, 일종의 메타-공통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김도현, 2019).

라.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 개발

돌봄농업 실천 방향과 원칙, 범위를 바탕으로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⁶⁾을 개발했다. 돌봄농업 실천을 구상과 준비, 실행, 확장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생각하고 실행해야 할 과업들을 제시했다. 필요한 경우 돌봄농업 실천 농장의 경험을 모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덧붙였다.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방향

1. 기대효과

가. 농촌 지역사회의 다양한 성격과 유형의 돌봄농업 자생적 실천 확산에 기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기존 농가나 귀농인, 농촌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돌봄농업의 구체적인 경험과 성찰, 관련 전문 지식을 정리하고 공유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성격과 유형의 돌봄농업 자생적 실천이 확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나. 돌봄농업 실천 모델의 개발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논의의 발판 마련
그동안 돌봄농업의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내용과 추진체계를 도출해서 한국 농업·농촌 현실에 맞는 돌봄농업 실천 모델의 개발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

다. 돌봄농업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농업의 다기능성을 기반으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농촌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으로써 돌봄농업의 비전과 목표를 탐색하고, 농업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6)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dsa.or.kr)-농업실용연구지원-농업실용연구총서 부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 연구 한계

본 연구에서는 다기능농업과 사회적농업, 돌봄농업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았다. 굳이 따지자면 돌봄농업보다 고용, 교육, 복지를 통해 지역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농업이 더 큰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또 사회적농업은 농업이 먹거리 생산이라는 일차적 기능 외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 등 다른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개념인 다기능농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특정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실천을 모두 ‘돌봄농업’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개념의 이론적 고찰보다 실천 방향과 열개 제시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매뉴얼을 표방하고 있지만, 돌봄농업의 일률적인 모델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역마다 배경과 상황, 농가의 상황, 농민의 지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체와 실천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실행 지침보다는 최소한의 원칙과 지향을 제시하는 가이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향후 발전방향

앞으로도 국내 돌봄농업 실천 주체와 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농촌 현장에서의 돌봄농업 실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더욱 실제적인 관련 법제와 지원정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또 농민과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협업하고 농업과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과 농민이 스스로 새로운 기회와 공동의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실천이 가능할 때, 농업·농촌의 변화·발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돌봄농업 실천할 주체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에게 돌봄농업을 비롯한 사회적농업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지역 단위 교육 훈련 과정과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공병혜. 2017.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 봄.
- 김은주·이상수. 2005. “유아교육에서 ‘돌봄’과 ‘살림’에 대한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6권 3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정섭. 2019. “사회적농업, 지역사회를 돌보는 농업”. 『19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워크숍 자료집』. 충청남도.
-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증장기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낸시 폴브레. 2007. 『보이지 않는 가슴』. 윤자영 옮김. 또 하나의 문화.
- 사이토 미치오. 2006.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송태욱 옮김. 삼인.
- 엄기호. 2018.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나무연필.
- 에드워드 렐프. 2005.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 유럽과학기술협동조합(COST). 2015. 『녹색 돌봄』. 안병은 옮김. 그물코.
-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6. 『농촌형 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보고서 자연구시』.